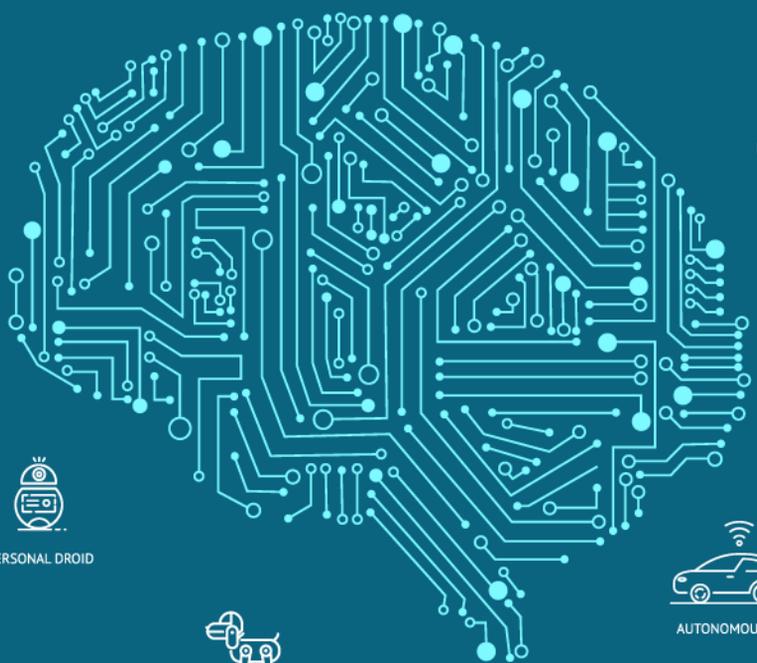


# 해외 IT 업체 동향 브리핑

(2017.07.17~07.28)



BRAIN SIMULATION



MOTION AND MANIPULATION



CYBERNETICS ROBOTIC ARM



SMART HOUSE



PERSONAL DROID



SMART WATCH



PET ROBOT



AUTONOMOUS CAR



AIR DRONE



VIRTUAL REALITY



SMART GLASSES



HOLOGRAPHIC DISPLAY

# CONTENTS



3

Apple iPhone 8, 얼굴인식용 적외선 센서 내장...손동작 인식 기능도 지원할 수도  
Apple, 중국에서 Apple Pay 이용 확대 목적의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예정  
iPad 판매 확대를 위한 Apple의 신규 전략, 병원 내 개별 환자들에게 iPad 보급



6

YouTube, YouTube Red와 Google Play Music 통합 예정  
Google, 단말간 통신 지원하는 Nearby Connections API 개발자들에게 공개  
Google, MLB와 협력해 오리지널 VR 동영상 제작



9

Facebook, 15인치 터치스크린 탑재 스마트 스피커 출시설...모듈형 스마트홈 단말 개발로 이어질지도  
Facebook, FB 메신저 홈스크린 광고 적용 서두를 전망...Facebook 매출 증가율 둔화 때문인 듯  
Facebook, 지능형 개인 비서 플랫폼 개발 업체 Ozlo 인수  
Oculus, 플랫폼 개방 가능성 제기...단말 에코시스템 확대 목적



14

Amazon, 영화 배급 사업 진출설...영화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리스크 최소화  
Amazon, Sears 자체 브랜드 가전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Alexa 기반 스마트홈용 단말 생태계도 완성 단계  
Amazon, Meal kit 서비스 관련 상표권 등록...홀푸드 강점 최대한 활용하면서 Amazon Prime 가치 제고 가능  
Amazon, Treasure Truck 미국 전역으로 확대 예정...빅데이터 분석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모바일 매장으로 진화 전망  
Amazon, 여성 핸드백 및 신발 자체 브랜드 'The Fix' 출시



20

美 Lyft,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부문 'Level5' 신설...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발 서둘러야  
美 Lyft, Taco Bell과 협력해 픽업 서비스 제공...O2O 서비스 통합형 플랫폼으로 진화  
소셜VR 서비스 AltspaceVR, 다음 주 서비스 중단 발표...세컨 라이프 컨셉을 벗어난 세계관 필요  
대만 HTC, 중국 시장용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 공개...아직 갈 길 먼 듯  
Spotify, 유료 가입자 6,000만 명으로 확대...유료 가입자 대상 앨범 선공개 전략 효과인 듯  
Fitbit, 앱 스토어 지원 신규 스마트 시계 출시 예정...판매량 회복 쉽지는 않을 것  
삼성전자, Bixby 전용 무선 이어폰 개발설...AI 스피커 대신이라면 독립형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中 Xiaomi, AI 스피커 'Mi AI' 공개...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저가 스마트홈 구축지원 가능 전망



## Apple iPhone 8, 얼굴인식용 적외선 센서 내장...손동작 인식 기능도 지원할 수도

### Summary

- Apple의 iPhone 8에 얼굴인식을 위한 적외선 센서가 내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Apple Insider가 7월 31일(미국시간) 보도
- 이 같은 사실은 Apple의 AI 스피커인 HomePod의 펌웨어 공개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HomePod는 A8 칩을 탑재하고 1GB RAM과 상단 디스플레이의 해상도는 272x340 수준
- iPhone 8과 관련해서는 5.1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해상도는 2436x1125 수준에 BiometricKit에서 얼굴인식을 위한 적외선 센서를 내장
- 단말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것과 같이 풀 스크린에 단말 상단 중앙에 스피커, 전면 카메라, 근접 센서 등을 내장한 형태
- 한편, iPhone 8의 경우 풀스크린을 채택하되 아직까지는 전면 카메라와 스피커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며, 적외선 센서를 통해 얼굴인식과 함께 손동작 인식 기능을 지원해 단말을 책상 위에 놓은 상태에서 손동작으로 Apple TV를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알 수 없으나, 스마트폰에서 TV 리모컨 모드를 실행해 놓은 상태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필요 시 손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TV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단말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HomePod 펌웨어를 통해 공개된 iPhone 8 이미지



출처: Guilherme Rambo 트위터 계정, 2017.07



## Apple, 중국에서 Apple Pay 이용 확대 목적의 대규모 프로모션 진행 예정

### Summary

- Apple이 중국에서 Apple Pay와 관련해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도를 인용해 9to5Mac이 2017년 7월 17일(미국시간) 보도
- South China Morning Post는 Apple이 2017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내 [27개 오프라인 매장과 16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Apple Pay로 결제 시 최대 50%를 할인해 주거나 기존 포인트 대비 최대 50배까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이 같은 프로모션은 Apple이 2016년 2월 18일 중국에서 Apple Pay를 출시한 이래로 최대 규모의 프로모션이라고 South China Morning Post는 설명
- 단, Apple이 1주 동안 대규모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도 중국 내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 2017년 1분기 기준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Alibaba와 Tencent 소유의 Alipay와 WeChat Pay의 시장점유율이 각각 53.7%와 39.5%로 거의 듀오폴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
- 한편, 최근 Apple이 [Paypal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pple Pay에서 Paypal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삼성전자도 바로 Paypal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대응을 했는데, 중국 내 서비스 매출 확대 차원에서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중국 소비자들의 경우 Alipay나 WeChat Pay 이용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 입지를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 iPad 판매 확대를 위한 Apple의 신규 전략, 병원 내 개별 환자들에게 iPad 보급

### Summary

- Apple이 병원 내 개별 환자들에게 iPad를 보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TechCrunch가 2017년 7월 16일(미국시간) 보도
- TechCrunch는 Apple은 지난 몇 년 동안 헬스케어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이를 제대로 실현한다면 모든 병원의 환자들이 iPad를 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
- Apple의 경우 이미 UC San Diego의 Jacobs Medical Center, 시카고의 MetroSouth Medical Center, 그리고 LA의 Cedars-Sinai와 협력을 진행 중에 있으며, Cedars Sinai 병원에서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그램의 경우 모든 환자들이 iPad를 통해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 담당자와 교육 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TechCrunch는 설명
- TechCrunch는 의사들의 경우 이미 몇 해 전부터 iPad나 모바일 단말을 활용해 업무를 보고 있으나, 개별 환자들에게 iPad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사와 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면서 iPad 판매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예를 들어, 간호사의 경우 환자를 관리하는 동시에 질환과 질환 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환자에게 해야 하는데, 환자가 iPad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면 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막 출산한 출산부의 경우에도 갓난 아기를 iPad의 FaceTime을 통해 원할 때마다 볼 수가 있다는 설명
- 한편, Apple이 의료기관들이 개별 환자들에게 iPad를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iPad 판매량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의료기관이 iPad를 대량으로 구매할 지 알 수 없고 iPad를 통한 관리 서비스 제공 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환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기 때문에 병원 내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뚜렷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YouTube, YouTube Red와 Google Play Music 통합 예정

### Summary

- YouTube가 가입형 유료 OTT 동영상 서비스인 YouTube Red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Google Play Music을 통합할 계획이라고 The Next Web이 2017년 7월 26일(미국시간) 보도
- YouTube의 음악 부문 Lyor Cohen 책임자는 New Music Seminar Conference에서 YouTube Red와 Google Play Music을 통합한다고 밝혔음. 단 정확한 통합 시기는 밝히지 않았음
- 한편, Google과 YouTube는 OTT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관련해 현재 YouTube Red, YouTube Music, Google Play Music, YouTube TV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서비스를 정리하면서 Google Play Music에 동영상 콘텐츠를 추가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YouTube의 경우 2015년 10월 월 9.99달러로 광고 없이 YouTube 동영상과 자체 제작한 콘텐츠 시청이 가능한 YouTube Red 서비스를 출시하고, 2015년 11월에는 YouTube내 음악 관련 동영상을 모아서 광고 없이 월 9.99달러 또는 광고 기반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YouTube Music을 출시. 양 서비스는 한 서비스만 유료로 가입을 하면 모두 이용이 가능
- Google은 Google Play Music 유료 가입 시 YouTube Red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반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3월에는 실시간 채널을 지원하는 온라인 TV 서비스인 YouTube TV를 출시하기도 했음
- 따라서 Google 입장에서는 다수 중복되는 서비스를 정리하고 Google Play Music에 YouTube Red를 통합해 오디오·비디오 통합형 OTT 서비스를 제공하고, YouTube TV가 실시간 채널을 지원하는 온라인 TV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임. YouTube TV는 2017년 3월 출시 후 지금까지 [다운로드 수가 200만 건을 기록](#)하면서 이용자들의 반응은 얻고 있는 상태. 단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유료로 가입을 했는지는 알 수 없음
- 한편, YouTube가 Google Play Music에 YouTube Red를 통합을 하면 Google Play Music 이용자들이 YouTube내 동영상도 광고 없이 시청이 가능해 Google Play Music 서비스 가입자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YouTube Red 서비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YouTube내 동영상을 모은 서비스(YouTube내 유명 방송인과 함께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도 있음)로 다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들이 원하면 YouTube를 통해 시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료 가입자 확대에 큰 효과는 없을 수도 있을 것
- 현재 Spotify나 Apple과 같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오리지널 동영상 콘텐츠를 추가하면서 자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동영상 수 보다는 얼마나 재미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는가가 유료 가입자 확보에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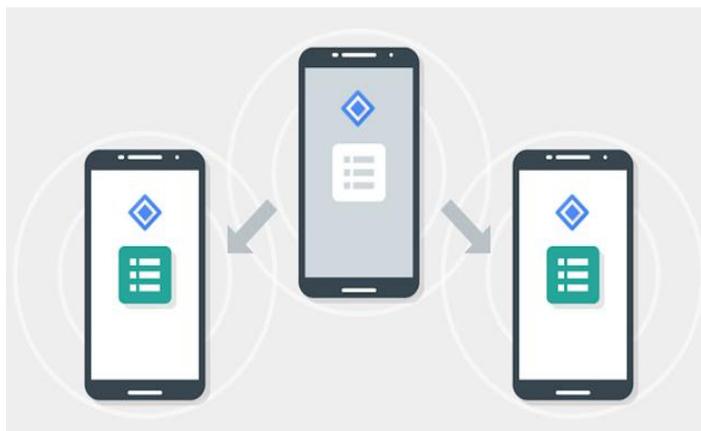


## Google, 단말간 통신 지원하는 Nearby Connections API 개발자들에게 공개

### Summary

- Google이 단말 간 위치 확인이 가능한 Nearby Connections 툴킷을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에게 공개했다고 Engadget이 2017년 7월 31일(미국시간) 보도
- 신규 Nearby Connections는 블루투스 LE, 기존 블루투스, WiFi를 활용해 단말 간의 위치를 파악한 후 인터넷 연결 없이도 정보(광고 포함)를 전달하거나 설정된 기능을 실행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단말 사용자가 호텔 방안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거나, 배우자에게 가까이 가면 스마트폰의 연락처가 자동으로 나타나는 형태임
- 아울러 메쉬 네트워크(Mesh Networks)를 지원해 단말 간 통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다수 단말로 보내거나 낱씨 채널이 인터넷 신호가 약한 지역에 메쉬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람들에게 낱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Hotsotar와 같은 동영상 스트리밍 앱도 오프라인에서 저장된 파일을 사용자 단말로 전송이 가능
- 한편, Google은 2015년 7월 개방형 블루투스 비콘 플랫폼인 Eddy Stone을 출시하면서 [Nearby API와 Proximity API를 공개](#)했는데, Nearby API의 경우 블루투스 비콘간 위치 확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으며, Proximity API로는 사용자 단말이 근처에 있을 경우 블루투스 비콘을 통해 각종 정보 제공이 가능한데, 이 둘을 통합한 것이 Nearby Connections인 것으로 보이며, 개별 단말의 위치를 확인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단말간 통신을 통해 각종 기능을 실행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스마트홈 도입을 확대하고 사물 인터넷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특히 스마트 시계에 관련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가 손만 가져다 대도 스마트홈 단말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면 스마트 시계의 활용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도국과 같이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나 콘텐츠 이용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

### Nearby Connections 컨셉



출처: Google, 2017.07



## VR+ Google, MLB와 협력해 오리지널 VR 동영상 제작

### Summary

- Google이 MLB와 협력해 제작한 오리지널 VR 동영상 시리즈인 'On The Verge'를 방영한다고 2017년 7월 27일(미국시간) 발표
- Google의 가상현실 플랫폼인 Daydream 팀은 2016년 11월 NFL과 협력해 VR 전용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한 바 있으며, MLB와도 동영상 게임과 MLB 선수들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입형 서비스 앱인 'MLB.com At Bat' 앱을 개발한 바 있는데, 동영상 시리즈까지 제작을 한다는 것
- On The Verge는 MLB 선수들 중 떠오르는 스타 선수들의 경기 준비 모습과 같은 경기 뒤 모습을 촬영해 시청자들이 MLB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해당 콘텐츠 촬영을 위해 MLB는 Google의 Jump 카메라와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2017년 7월 27일 첫 번째 에피소드를 방영하고 이후 YouTube에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
- Google이 Daydream 플랫폼의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노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일상을 360도 카메라로 촬영해 MLB 구장의 분위기를 선수와 함께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야구팬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도 있을 것

### On The Verge 촬영 이미지



출처: Google, 2017.07



## 🔊 Facebook, 15인치 터치스크린 탑재 스마트 스피커 출시설...모듈형 스마트홈 단말 개발로 이어질지도

### Summary

- Facebook이 15인치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DigiTimes의 보도를 인용해 TechCrunch가 2017년 7월 25일(미국시간) 보도
- DigiTimes는 중국 iPhone 생산업체인 Pegatron이 2018년 1분기 출시를 목표로 단말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미 소량의 단말을 파일럿 생산하기도 했다고 밝혔음
- 해당 단말은 Facebook의 하드웨어 개발팀인 Building 8에서 디자인을 했으며,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 케이스에 LG전자의 인셀 터치 스크린을 탑재
- TechCrunch는 해당 단말은 디지털 액자 기능을 하면서 Facebook Feed의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Facebook Messenger로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한편, Facebook의 경우 Facebook Messenger 내에서 지능형 개인 비서인 'M'을 제공하고 있고 Mark Zuckerberg CEO 역시 퍼스널 챗린지 차원에서 [개발한 지능형 개인 비서를 2016년 12월 공개](#)했는데, 해당 지능형 개인 비서로 운영이 되면서 Facebook, Facebook Messenger, Instagram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15인치 스마트 스피커를 먼저 출시한 후 모듈형 스마트홈 단말 개발을 통해 스마트홈을 구축해 나갈 수도 있을 것
- 최근 Facebook이 2016년 9월 인수한 [Nascent Objects의 기술을 특허 출원한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Facebook이 경쟁 업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지능형 개인 비서를 지원하는 15인치 스마트 스피커와 함께 모듈형 스마트홈 단말을 개발해 제공한다면 스마트홈 허브 경쟁과 차세대 핵심 UI 및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지능형 개인 비서 경쟁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넓혀나갈 수도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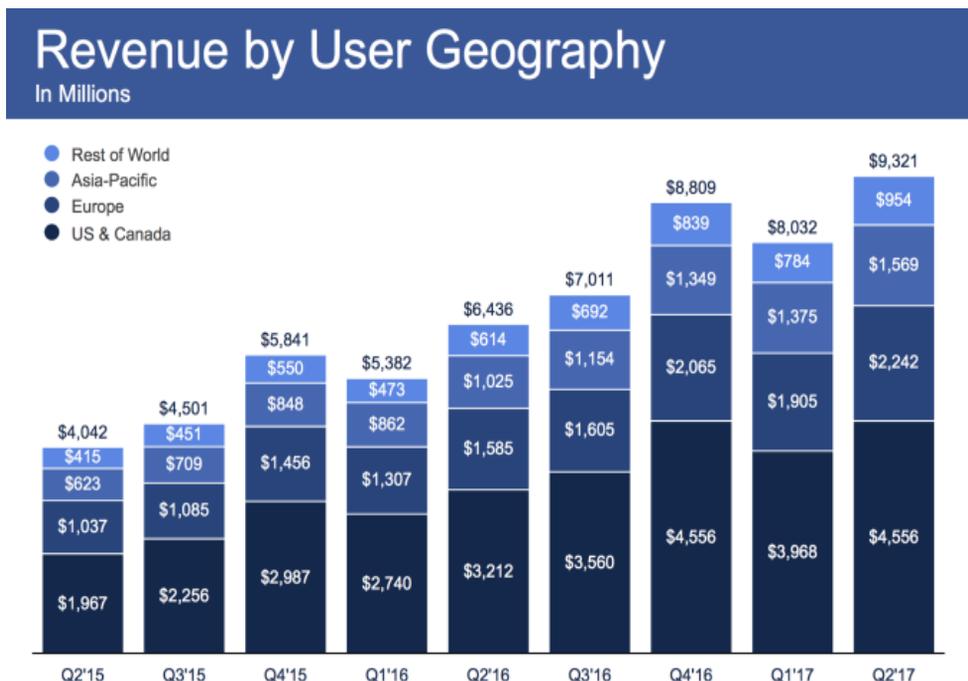


## Facebook, FB 메신저 홈스크린 광고 적용 서두를 전망...Facebook 매출 증가율 둔화 때문인 듯

###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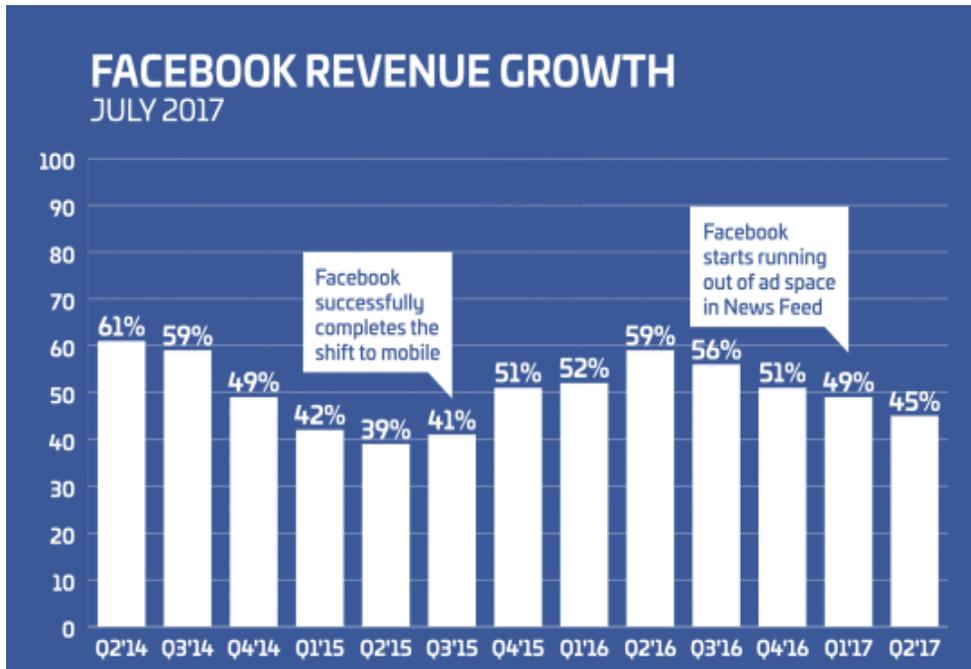
- Facebook이 Facebook Messenger 내 홈스크린 광고 적용을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Facebook의 Mark Zuckerberg CEO는 2017년 7월 26일(미국시간) 2017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Facebook Messenger 홈스크린 광고 적용을 서두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최근 Facebook이 호주와 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Facebook Messenger 홈스크린 광고를 글로벌 이용자로 확대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는데,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 Facebook의 이 같은 행보는 Facebook의 뉴스피드 광고가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더 이상 광고 매출 확대가 어렵기 때문으로 Facebook의 연도별 매출 증가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Facebook의 2017년 2분기 매출은 93억 2,100만 달러로 2016년 동기 대비 44.8% 증가했으나, 연도별 매출 증가율이 2016년 2분기 59%로 최대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한편, 2017년 7월 26일 Facebook이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8월 중순부터 방영할 예정](#)이며, 7월 27일에는 미디어 플랫폼인 [Instant Articles](#)를 통해 [유료 가입형 서비스를 정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이용자들이 직접 생성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감소하고 있는 Facebook이 점점 동영상과 뉴스 이용 채널로 전환되고 있음

Facebook 분기별 매출



출처: Facebook, TechCrunch, 2017.07

Facebook 분기별 매출 연도별 증가율



출처: TechCrunch, 20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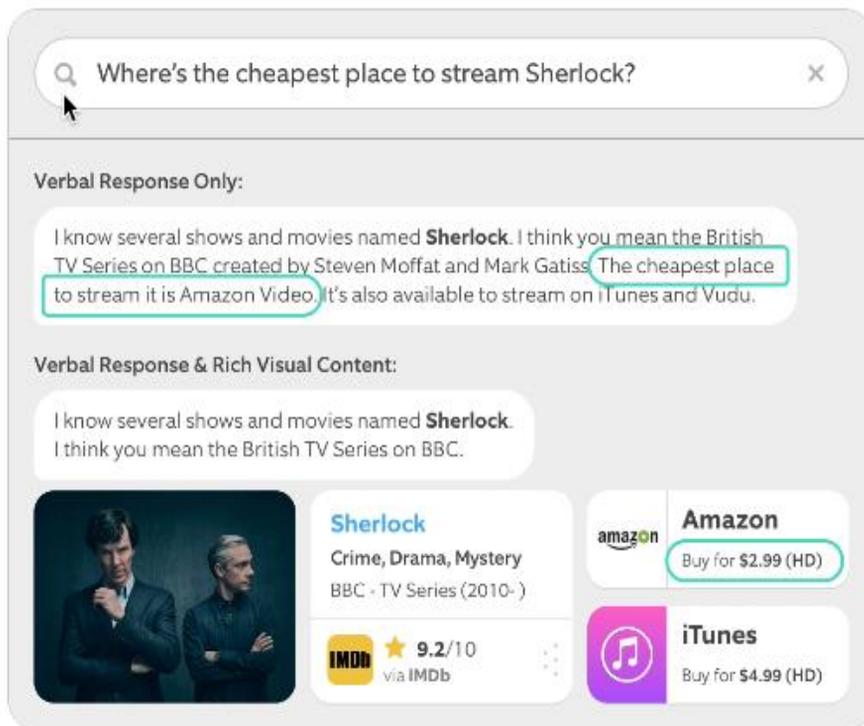


## Facebook, 지능형 개인 비서 플랫폼 개발 업체 Ozlo 인수

### Summary

- Facebook이 지능형 개인 비서 개발 업체인 Ozlo를 인수했다고 TechCrunch가 2017년 7월 31일 (미국시간) 보도
- Ozlo는 2013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알토에 설립된 업체로 좀 더 자연스러운 대화를 지원하는 지능형 개인 비서 플랫폼을 개발. 2017년 3월에는 [지능형 개인 비서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API 3개를 출시](#)하기도 했음
- 한편, Ozlo는 Facebook Messenger팀에 합류할 예정으로, Facebook이 Facebook Messenger의 Chabot 기능 향상을 위해 Ozlo를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Ozlo의 지능형 개인 비서 플랫폼의 기능으로 볼 때 Facebook Messenger의 대화형 커머스 이용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Ozlo 지능형 개인 비서



출처: Ozlo, 2017.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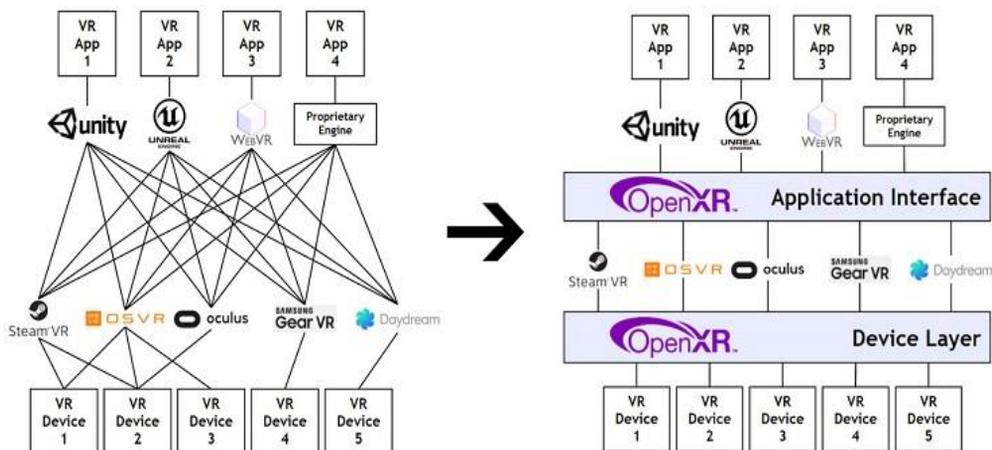


**VR+ Oculus, 플랫폼 개방 가능성 제기...단말 에코시스템 확대 목적**

**Summary**

- Facebook의 Oculus가 자사 가상현실 플랫폼의 단말 에코시스템 확대 차원에서 플랫폼을 써드파티 헤드셋 개발 업체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Road to VR이 2017년 7월 29일(미국시간) 보도
- Road to VR은 지난 주에 개최된 Oculus의 프레스 이벤트에서 Rift의 Nate Mitchell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눈 결과 Oculus가 타사 가상현실 단말이 Oculus의 에코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2가지 방법을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음
- 첫 번째의 경우 삼성전자의 Gear VR처럼 ‘Oculus Partner’ 형태로 Oculus 플랫폼을 활용하는 헤드셋을 개발하도록 지원
- 두 번째는 써드파티 헤드셋으로, 단말 개발에 Oculus가 어떤 관여도 하지 않지만, 써드파티 업체가 공식적으로 Oculus 에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
- 신규 플랫폼의 경우 선도 사업자가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Facebook이 폐쇄형 정책을 유지했으나, 가상현실 단말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시점에서 플랫폼을 개방해 단말 에코시스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Facebook, Google, 삼성전자 등 모든 업체들이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상현실 단말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
- 2017년 2월 API 표준화 제정 비영리 표준화 단체인 Khronos Group이 플랫폼과 게임 엔진에 상관없이 가상현실 단말 사용자들이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인 OpenXR을 발표했는데,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플랫폼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OpenXR**



출처: Road to VR, 2017.07

Source [Road to VR](#)



## Amazon, 영화 배급 사업 진출설...영화에 대한 통제권 강화로 리스크 최소화

### Summary

- Amazon이 영화 제작에 이어 영화 배급 사업까지 진출할 예정이라고 Variety가 2017년 7월 27일 (미국시간) 보도
- Amazon은 우디앨런 감독의 Wonder Wheel을 파트너 배급사 없이 자체적으로 배급해 상영할 예정으로, Wonder Wheel은 2017년 12월 1일 극장에서 개봉 예정임
- Amazon의 경우 이전까지는 영화를 제작한 후 Bleecker Street, Roadside Attractions, Lionsgate의 배급사와 협력해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해 왔음
- 특히 Amazon은 영화 제작 후 바로 Netflix를 통해 방송을 하는 Netflix와는 달리 일반 영화 제작사와 같이 영화관에 우선 상영 후 90일이 지난 후에 Amazon Prime Video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형태를 취했는데 제작 영화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배급 사업에 진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영화의 경우 제작사, 배급사, 상영관으로 나뉘서 영화를 제작한 후 배급해 상영을 하는 구조로 과거에는 배급사가 제작사와 상영관을 모두 소유해 자사가 제작한 영화를 먼저 상영하거나 영화가 완성이 되기 전에 배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완력을 행사
- 이에 미국 대법원은 1948년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파라마운트와 메이저 스튜디오에 대해 영화 제작과 영화 배급, 영화 상영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이 독점 금지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으며, 5개의 메이저 배급사(MGM, Paramount, Warner Bros, 20 Century Fox, RKO)와 기타 배급사에게 극장을 매각하도록 했음
- 아울러, 수익 구조에 있어서도 관람료 수익의 절반은 극장이 나머지 절반에서 배급사가 8~10%를 가져가고 이후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과 해외 판권 수입 및 부가판권 수입을 투자사와 제작사가 분배하는 형태로 영화가 흥행을 하지 못해도 극장과 배급사는 일정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며, 배급사의 경우 DVD 판권과 해외 판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많음
- 한편, Amazon이 다른 영화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배급하는 방법을 택할지는 알 수 없으나, 배급 사업 진출을 통해 영화 제작 및 배급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것으로 판단됨

- Amazon의 경우 자금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화만 제대로 제작을 하면 자금력을 활용해 마케팅과 상영관을 늘려 영화가 흥행할 가능성을 늘릴 수 있고 흥행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익과 함께 OTT 서비스용 콘텐츠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특히 영화가 흥행을 하지 못할 경우 홀드백 기간을 단축해 Amazon Prime Video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제공할 수가 있어 Amazon Prime Video 경쟁력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물론 기존 배급사들의 견제로 인해 자체 제작한 영화를 다수 극장에서 상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극장 개봉 후 흥행 여부에 따라 홀드백 기간을 조절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배급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Amazon, Sears 자체 브랜드 가전을 자사 사이트를 통해 판매...Alexa 기반 스마트홈용 단말 생태계도 완성 단계

### Summary

- Amazon이 미국 백화점 체인인 Sears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Sears의 자체 브랜드 가전인 Kenmore 가전을 Amazon.com을 통해 판매한다고 VentureBeat이 2017년 7월 28일(미국시간) 보도
- Amazon.com을 통해 판매되는 Kenmore 가전의 경우 Amazon의 지능형 개인 비서인 Alexa와 연동이 되는 스마트 가전도 포함
- VentureBeat은 가전 제품 카테고리의 경우 Amazon의 지배력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되었으나, Amazon이 Kenmore를 판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전 판매 시장에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
- 특히 가전 제품의 경우 직접 만져보고 확인이 필요한 고관여 제품에 배송과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e커머스 업체가 이 생태계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는데 Amazon이 진출함에 따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
- Amazon의 경우 2017년 7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스마트홈 컨설팅 및 단말 설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는데, Amazon.com에서 Kenmore 제품을 구매하면 Amazon의 스마트홈 컨설팅 및 단말 설치 서비스 인력이 제품을 배달하고 설치를 해줄지 아니면 Sears 인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Amazon이 스마트홈 단말 뿐만 아니라 스마트홈 가전 브랜드까지 확보함에 따라 Amazon Echo(Alexa)를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홈의 단말 생태계가 거의 완성되고 있으며, 국내 삼성전자의 경우 가전 제품과 관련해 Bixby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면서 경쟁업체들의 지능형 개인 비서도 지원하는 개방형 전략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Sears와 같이 Amazon과 협력을 하는 유통 매장들은 시간이 갈수록 Amazon.com의 물류 창고로 전략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협력 제품 카테고리가 아직까지는 가전에 한정되어 있어 자사 가전 제품 판매 채널을 Amazon.com으로 확대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IT 업계의 혁신은 Apple, Google, 삼성전자가 아니라 Amazon이 주도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Amazon이 의식주와 관련 있는 제품 및 서비스 판매를 대부분 장악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Source [VentureBeat](#), [LA Times](#)



## Amazon, Meal kit 서비스 관련 상표권 등록...홀푸드 강점 최대한 활용하며 면서 Amazon Prime 가치 제고 가능

### Summary

- Amazon이 소비자들이 바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킷(Meal Kit) 서비스 관련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Engadget이 영국 The Times의 보도를 인용해 2017년 7월 17일(미국시간) 보도
- The Times에 따르면 Amazon이 미국 특허청에 특정 서비스와 관련해 “We do the prep. You be the Chef”라는 슬로건을 등록했으며, 상표권 설명에는 “소스를 포함한 육류, 가금류, 생선, 어류, 과일, 야채로 구성된 바로 조리가 가능한 푸드 키트와 냉동, 손질이 완료된, 포장된 밀(Meal)”을 포함한다고 언급
- 한편, Amazon의 경우 신선식품을 포함한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AmazonFresh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17년 6월 18일 유기농 식품 판매 매장인 Whole Foods를 인수한다고 밝혔는데, Whole Foods의 경우 매장 자체적으로 바 형태의 초밥, 피자, 샐러드,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소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밀킷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Whole Foods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소형 음식점을 통해 유기농 재료로 조리한 다양한 요리를 판매하면서 해당 요리를 가정에서도 바로 조리하거나 데워 먹을 수 있는 밀킷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선 식품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특히, 밀킷 서비스의 경우 구독형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Amazon Prime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
- Amazon Prime 가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mazon Prime 가입자가 확대되고, 일단 소비자들이 Amazon Prime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서비스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Amazon을 통한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 한편, Amazon의 밀킷 서비스 관련 상표권 등록과 함께 밀킷 서비스를 제공하는 Blue Apron의 주가는 11% 하락

### Meal Kit 서비스 관련 상표권 및 설명

GOODS AND/OR SERVICES AND BASIS INFORMATION	
INTERNATIONAL CLASS	029
WE DO THE PREP. YOU BE THE CHEF.	Prepared food kits composed of meat, poultry, fish, seafood, fruit and/or and vegetables and also including sauces or seasonings, ready for cooking and assembly as a meal; Frozen, prepared, and packaged meals consisting of meat, poultry, fish, seafood, fruit and/or vegetables; fruit salads and vegetable salads; soups and preparations for making soups

출처: USPTO, 20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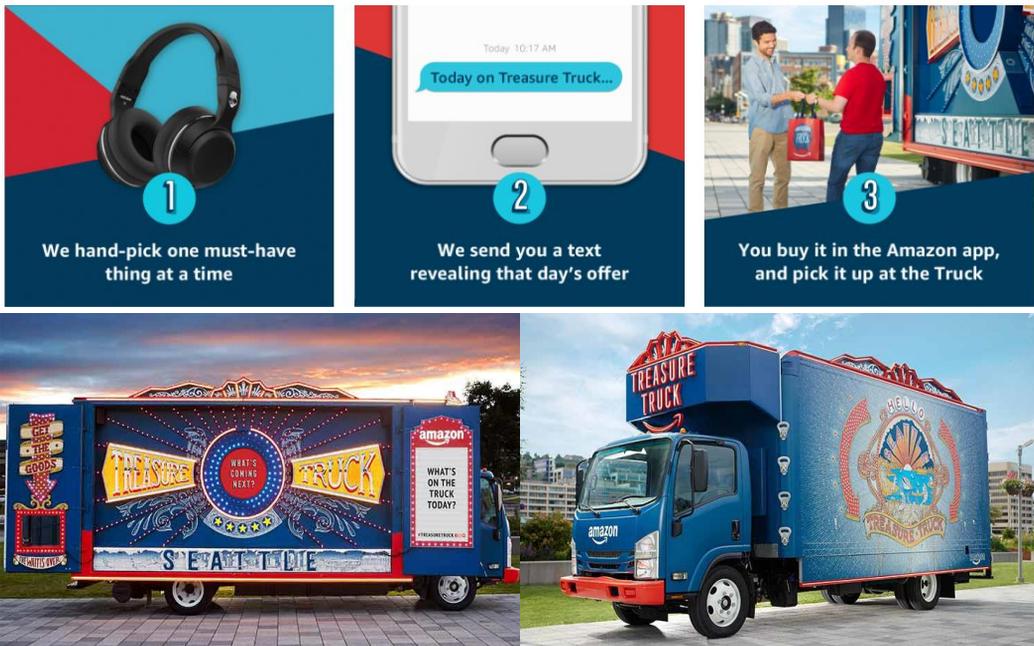


**Amazon, Treasure Truck 미국 전역으로 확대 예정...빅데이터 분석 통해 고객을 찾아가는 모바일 매장으로 진화 전망**

**Summary**

- Amazon이 2015년 6월 출시한 핫딜 상품 판매 트럭인 Treasure Truck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TechCrunch가 2017년 7월 19일(미국시간) 보도
- Amazon은 2015년 6월 시애틀 지역에서 [Treasure Truck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 1월에는 [관련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는데, 테스트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것
- Treasure Truck 이용 방법은 24193번으로 “TRUCK”이라고 문자를 보내면 신규 핫딜 상품 관련 알림을 받을 수 있고 Amazon 앱 설정에서 알림 카테고리에서 “Treasure Truck Offers”를 활성화 시키면 됨
- 현재 Amazon Treasure Truck의 경우 핫딜 상품을 전용으로 판매하지만 향후 판매 상품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Amazon의 경우 이용자의 데이터 기반한 [예측 배송\(Anticipatory Shipping\) 특허를 획득](#)한 바 있는데, 향후 Amazon.com의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해 이용자가 확인해 본 제품이나 장바구니 제품 등을 Treasure Truck을 실어서 해당 이용자가 있는 지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있을 것
- 아울러,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Treasure Truck이 고객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매장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Amazon Treasure Truck**



출처: Amazon, 2017.07

Source [TechCrunch](#), [Amazon Treasure Truck](#)



## Amazon, 여성 핸드백 및 신발 자체 브랜드 'The Fix' 출시

### Summary

- Amazon이 여성 핸드백 및 신발 전용 자체 브랜드인 'The Fix'를 출시했다고 TechCrunch가 2017년 7월 28일(미국시간) 보도
- Fix 서비스는 Amazon Prime 가입자 전용 자체 브랜드로 디자이너 제품과 유사한 저가 신발과 핸드백을 판매
- 매월 새로운 스타일의 제품이 추가되며 Fix용 제품 선정을 위해 Amazon의 제품 담당자가 시장을 살펴보면서 새롭고 유명한 아이템을 물색한 후에 디자이너 제품과 비교해 저가의 유사한 스타일의 제품을 제공하는 형태임
- Amazon 측은 Fix 서비스를 위해 써드파티로부터 신발을 공급받고 있으며, Amazon에서 판매를 철회한 Birkenstock(신발)와 같은 업체의 제품도 써드파티 매장을 통해 확보를 하고 있다고 TechCrunch는 설명

### Fix 브랜드 제품

New From The Fix



The Fix Quinn Suede Fringe Wristlet...  
★★★★☆ 15  
\$49.00



The Fix Izzi Envelope Clutch With...  
★★★★☆ 15  
\$79.00



The Fix McKenzie Suede and Leather...  
★★★★☆ 12  
\$119.00

Best Selling Products from The Fix



The Fix Quinn Suede Fringe Wristlet...  
★★★★☆ 15  
\$49.00 ✓prime



The Fix McKenzie Suede and Leather...  
★★★★☆ 12  
\$119.00 ✓prime



The Fix Izzi Envelope Clutch with...  
★★★★☆ 15  
\$79.00 ✓prime



The Fix Kirby Mini Studded Suede...  
★★★★☆ 15  
\$59.00 ✓prime



The Fix Avery Studded Top Flap Suede...  
★★★★☆ 5  
\$119.00 ✓prime

출처: Amazon, 2017.07

- 한편, 최근 Amazon이 [글로벌 판매용 재고 확보를 위해 미국 내 다수 소매업체들로부터 판매가에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Fix와 기타 자체 브랜드 판매용으로 제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체 브랜드를 Amazon Prime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해 Amazon Prime 가입자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美 Lyft,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부문 'Level5' 신설...생존을 위해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발 서둘러야

### Summary

- 미국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Lyft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부문인 'Level5'를 신설했다고 2017년 7월 22일 발표
- Lyft의 지도 및 마켓플레이스 부문의 Luc Vincent(Google 출신, Street View 등 Google Maps 관련 다수 서비스 개발) 부사장은 Level 5 신설 이유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커뮤니티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 부분에서의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를 중단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계획을 공유해 왔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차량과 자율주행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갖춘 에코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Vincent 부사장은 또한 Lyft가 2017년 초에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로는 처음으로 다수 업체가 Lyft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발표했는데, 해당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자사가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차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파트너 업체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그는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어도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가능한 지역의 호출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를 보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차가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을 보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 한편, Lyft의 경우 Uber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준으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파트너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시장 입지를 넓혀 간다는 계획이지만,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고 Lyft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차가 많아지게 되면 사실상 Lyft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지금과 같은 중계 수수료 수익뿐으로 그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은 고수하되 자체적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해 중계 수수료 외에 서비스 매출도 확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향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Lyft 서비스 차량 중 자율주행차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트너 업체들이 일정 기간 Lyft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독자적인 차량 호출 앱을 출시하고 협력을 중단한다면 Lyft로서는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을 것
- Lyft와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에게 있어서 자율주행차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존을 위해서는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조만간 Lyft가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스타트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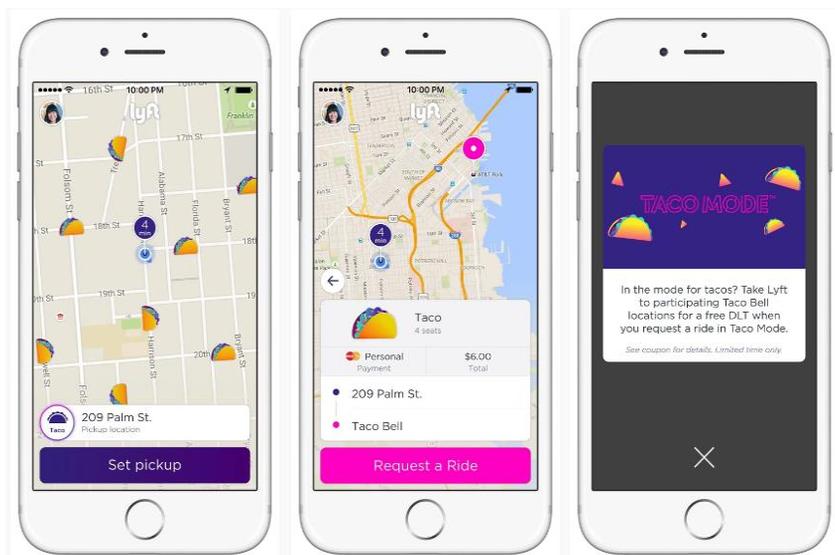


**美 Lyft, Taco Bell과 협력해 픽업 서비스 제공...O2O 서비스 통합형 플랫폼으로 진화**

**Summary**

- Lyft가 멕시칸 패스트 푸드점인 Taco Bell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Lyft 이용 고객이 Taco Bell 매장에 들러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인 'Taco Mode'를 테스트한다고 2017년 7월 25일(미국시간) 발표
- Taco Mode 이용 방법은 Lyft 이용자 앱에서 차량을 호출 할 때에 Taco Mode를 선택해 이동 중 특정 Taco Bell 매장에 들러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주문한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형태.
- Taco Mode 서비스는 2017년 7월 27~30일과 8월 3~6일 2회에 걸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은 밤9시부터 새벽 2시까지임. Lyft 운전자의 경우 Taco Mode 지원 여부를 설정 가능
- 한편, 최근 차량 미국 Cargo가 [차량 호출 서비스용 차량에 장착해 소형 생필품 판매가 가능한 자판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향후 자율주행차가 움직이는 매장과 움직이는 음식점 역할을 하면서 Taco Mode와 유사하게 이용자가 차량 이용 30분 또는 1시간 전에 차량 호출과 함께 식료품 쇼핑이나 음식을 주문하면 자율주행차가 이를 수령해 이용자의 차량 이용 시간에 맞춰 대기를 하거나 이동 중에 매장이나 음식점에 들러 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아울러 특정 매장이나 음식점에 주문을 하면 해당 매장에서 운영을 하는 자율주행차 또는 협력 업체의 자율주행차가 주문한 제품 또는 음식을 미리 픽업해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맞춰 대기를 하고, 이용자는 업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구매 비용을 할인 받거나, 차량 호출 서비스를 무료 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

**Taco Mode**



출처: TechCrunch, 2017.07

Source [Lyft](#), [TechCrun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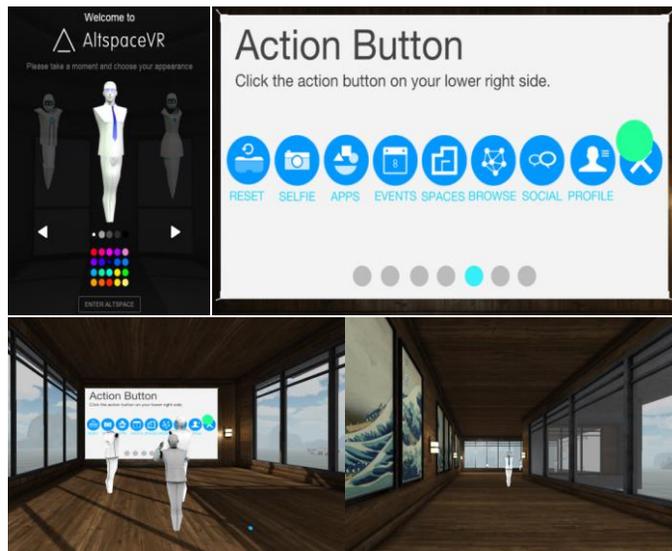


## 소셜VR 서비스 AltspaceVR, 다음 주 서비스 중단 발표...세컨 라이프 컨셉을 벗어난 세계관 필요

### Summary

- 소셜VR 서비스 업체인 AltspaceVR이 다음 주에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2017년 7월 27일 (미국시간) 발표
- AltspaceVR은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더 이상 소셜VR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며, 자기 자신들도 매우 놀랍고 실망스러우며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음
- AltspaceVR은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시티에 설립된 업체로 세컨 라이프와 유사하게 이용자들이 가상현실 공간에 모여 만남을 가지고 각종 콘텐츠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2015년 5월 서비스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공개하고, 2015년 6월에는 아이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표정 표현이 가능한 아바타를 공개했으며, 2015년 9월에는 Gear VR 지원 기능도 추가했으나 서비스 공개 3년 만에 결국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

#### AltspaceVR



출처: AltspaceVR, 2015.05

- 한편, AltspaceVR의 서비스 중단은 가상현실 단말이 충분히 빠르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상현실 단말의 누적 판매량이 많아야 1,500만대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단말 사용자가 빠르게 확대되지 않는다면 전체 에코시스템의 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아울러, AltspaceVR과 같은 소셜VR 서비스의 경우에도 과거 세컨라이프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단순히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소셜VR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방문을 유도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며, 가상현실 세계가 이용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옮겨 놓거나 좀 더 넓은 세계관이나 우주관을 기본으로 전혀 새로운 공간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가상세계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나 만화에서 보아왔던 초능력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랜덤으로 부여 받아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해야 할 것
- 아울러 해당 공간에서 자유롭게 다른 소셜VR 서비스, 가상현실 공간, 게임 등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용자가 많이 모인 공간에서 다른 이용자를 만나 게임이나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같은 활동을 원할 시에는 이용자들이 함께 현재 상태에서 바로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장소나 공간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해야 할 것
- 또한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재현한 공간에서는 이용자들이 특정 연대를 선택해 가상 세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해당 공간에 있는 이용자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각종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
- 가상현실 단말 또는 가상현실 서비스가 스마트폰, PC, TV, 증강현실 단말과의 시간 뺏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말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가상세계 역시 과거 세컨라이프 컨셉 보다는 훨씬 방대한 컨셉의 공간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한 다음 이용자들이 현실을 완전히 잊을 수 있는 서비스를 조금씩 추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 가상세계가 스마트폰의 OS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구조와 컨셉을 제시하고 세부 공간을 매년 업데이트해가면서 하나의 거대한 운영 시스템으로 모습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 VR+ 대만 HTC, 중국 시장용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 공개...아직 갈 길 먼 듯

### Summary

- HTC가 중국 시장용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인 'Vive Standalone'을 공개했다고 9to5Google이 2017년 7월 27일(미국시간) 보도
- Vive Standalone은 Snapdragon 835 칩셋과 Qualcomm의 VR 트래킹 시스템을 활용해 Inside-Out 포지셔널 트래킹을 지원
- 중국용 단말이기 때문에 Google Daydream 대신 Qualcomm의 VR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한 HTC의 Viveport 플랫폼을 활용. 정확한 출시일이나 단말 가격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 한편, Google은 2017년 Google I/O 2017에서 HTC와 Lenovo와 협력해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HTC가 중국용으로 먼저 제작해 출시할 계획인 것으로 보임
- 독립형 모바일 VR 단말의 경우 단말을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단말 성능도 모바일 VR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이 모바일 VR 보다 높고 아직까지 UI는 전용 컨트롤러에 의존하고 있는데다가 증강현실 모드까지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다소 의문
- 모바일 VR 단말이 거의 완성형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스마트폰의 멀티터치 수준의 손동작 인식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 스마트폰의 멀티터치에서 볼 수 있듯이 UI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어떤 단말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지는 못할 것

#### HTC 'Vive Standalone'



출처: HTC, 20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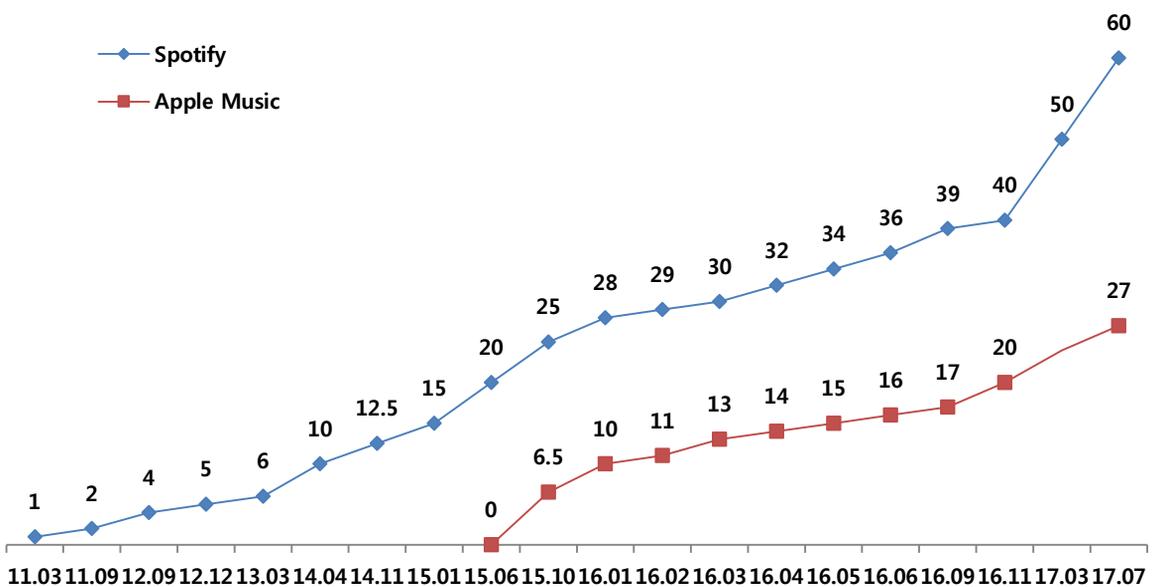


## Spotify, 유료 가입자 6,000만 명으로 확대...유료 가입자 대상 앨범 선공개 전략 효과인 듯

### Summary

- Spotify의 유료 가입자 수가 6,000만 명을 기록했다고 TechCrunch가 2017년 7월 31일(미국시간) 보도
- 이는 1년 내에 2,000만 명의 유료 가입자를 추가한 것으로, 2017년 3분기부터 가입자 수가 빠르게 확대
- Spotify는 2017년 4월과 7월에 각각 [Universal Music Group](#)과 [Sony Music](#)과 다년간에 걸쳐 다수 아티스트들의 신규 앨범을 일정 기간 동안 유료 가입자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라이선스 협정을 맺었으며, 2017년 7월 24일에는 [Warner Music](#)과도 [동일한 라이선스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알려졌다. 일부 유명 아티스트의 신규 앨범을 선공개했던 Apple과는 달리 다수 아티스트들의 신규 앨범을 선제공 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한편, Spotify는 2017년 3월 WNYC(미국 뉴욕시 공영 라디오 방송)와 팟캐스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팟캐스트 콘텐츠를 확대해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신규 앨범을 일정 기간 우선적으로 제공하면서 팟캐스트도 추가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유료 가입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금일 Apple은 2017년 8월 8일 방송 예정인 오리지널 콘텐츠인 카풀 가라오케(Carpool Karaoke)의 신규 예고편을 공개

Spotify와 Apple Music 유료 가입자 수 증가 추이(단위: 백만 명)



출처: MBW, TechCrunch, 201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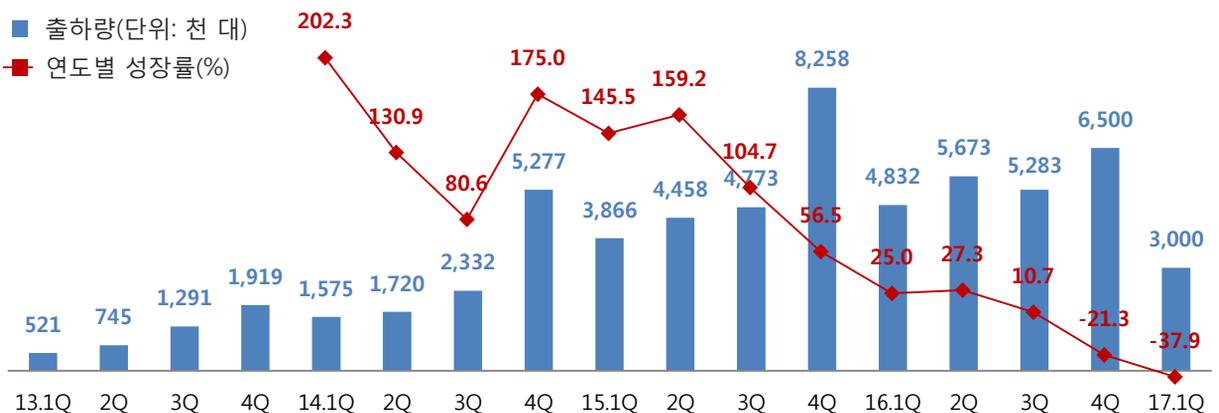


## Fitbit, 앱 스토어 지원 신규 스마트 시계 출시 예정...판매량 회복 쉽지 않을 것

### Summary

- Fitbit이 앱 스토어를 지원하는 신규 스마트 시계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The Verge가 2017년 7월 28일(미국시간) 보도
- Fitbit은 2016년 12월 스마트 시계 업체인 Pebble의 핵심 자산을 인수하고 2017년 1월에는 스마트 시계 업체인 Vector사를 인수해 스마트 시계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앱 스토어 없이 스마트 시계를 출시](#)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를 반박한 것
- Fitbit의 James Park CEO는 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 시계를 출시할 때 특정 파트너가 개발한 앱을 포함한 SDK(Software Development Kit)도 출시를 할 예정이며, 출시 후 바로 모든 개발자들에게 SDK를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한 Fitbit 사용자들은 현재 Fitbit의 모바일 앱 내의 “app gallery”에서 써드파티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단, Fitbit 스마트 시계의 정확한 출시일이나 초기 앱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음
- Park CEO는 “현재 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 피트니스 경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과 그것과 관련 있는 기능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 뿐이다”고 밝혔음
- 한편, Fitbit은 2017년 1분기 피트니스 트랙커 출하량이 300만 대를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출하량이 감소했는데, 스마트 시계 출시를 통해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쉽지 않을 것
- Fitbit이 200달러 전후반대 가격에 Apple Watch Sports나 Gear S3와 유사한 수준의 단말을 출시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 시계 시장의 경쟁축도 헬스케어 기능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Fitbit의 ‘피트니스 트랙킹 기능이 뛰어난 스마트 시계’가 ‘헬스케어 기능이 강화된 신규 스마트 시계’와 경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Fitbit 분기별 단말 판매량 및 연도별 성장률



출처: Fitbit 실적발표, 2017

Source [TechCrunch](#)





## 🎧 삼성전자, Bixby 전용 무선 이어폰 개발설...AI 스피커 대신이라면 💡 독립형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야

### Summary

- 삼성전자가 Bixby 전용 무선 이어폰을 개발 중이라고 국내 전자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The Verge가 2017년 7월 22일(미국시간) 보도
- 전자신문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블루투스 이어폰과 Bixby를 연동 및 최적화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이어폰은 인체를 활용한 주변 소음 차단 기술이 적용되고 삼성전자의 Bixby 전용 이어폰으로 갤럭시 노트8과 함께 출시될 예정이라는 것. 단말을 별도로 판매할 지 갤럭시 노트8과 번들로 제공될 지는 확인되지 않았음
- The Verge는 Bixby에 대해 아직은 멀었다는 평가를 했으며, WSJ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제어하는 기능은 훌륭하나 [아직 기본적인 음성인식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 WSJ는 Bixby에 “Lady Gaga의 음악을 실행해줘(Play Lady Gaga)”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Bixby가 “Play lady kaka”로 들은 후 시간을 알려주고 “Caller”를 “Collar”로 알아듣는 등 기본적인 음성 인식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
- 물론 해외 매체의 경우 OS나 지능형 개인 비서와 같은 핵심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자국 업체가 아닌 업체가 개발한 플랫폼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지만 Bixby의 기본적인 정보 검색 기능은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삼성전자가 AI 스피커를 대신해 무선 이어폰을 출시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자신문의 보도로 볼 때 해당 무선 이어폰이 독립형 단말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어폰의 경우 개인용 단말인 반면 AI 스피커는 가족용 단말이기 때문에 무선 이어폰을 저가에 판매하거나 단말과 함께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한 AI 스피커를 대신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삼성전자가 [Bixby 지원 AI 스피커 개발 중](#)이라고 알려졌으나, 이후 [2017년 내에 출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만약 삼성전자가 Apple의 AirPods의 대항마 역할을 하면서 AI 스피커를 대신해 무선 이어폰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독립형 단말에 200달러 미만에 판매를 하거나 독립형 단말이 아닐 경우에는 저가에 또는 스마트폰과 함께 무료로 제공해야 어느 정도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中 Xiaomi, AI 스피커 'Mi AI' 공개...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저가 스마트홈 구축 지원 가능 전망

### Summary

- 중국 Xiaomi가 지능형 개인 비서를 지원하는 AI 스피커인 'Mi AI'를 공개했다고 Engadget이 2017년 7월 26일(미국시간) 보도
- Mi AI는 사각 기둥형 모양의 스피커로 고음질을 지원하며 6개의 마이크를 내장해 방향이나 거리에 상관없이 음성을 감지하며, 지능형 개인 비서를 통해 음악 스트리밍, 날씨 확인, 일정 알림, 뉴스 확인 등이 가능
- 아울러 Amazon의 Alexa Skills처럼 써드파티 앱을 단축버튼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기능도 지원
- 가격은 45달러로 2017년 8월 중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
- 한편, Xiaomi가 Mi AI를 중국 외 국가에 출시할 지는 알 수 없으나, Xiaomi의 경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을 생산 판매하기 때문에 Mi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Xiaomi 가전을 연계하는 스마트홈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Mi AI



출처: Engadget, 2017.07

# Icon 설명

 유선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PC/노트북	 TV
 콘솔게임기	 스마트 안경	 스마트 시계	 피트니스/웨어러블	 OTT 동글
 Apple	 Google	 MS	 충전 기술/배터리	 칩
 터치	 동작인식	 안면/이미지 인식	 음성인식	 생체인증
 네트워크	 WiFi	 AI/맥락인식	 증강현실	 가상현실
 스마트홈	 IoT/IoT 단말	 3D 프린트	 스마트카	 로봇
 스마트 헬스	 온라인 교육	 인터넷	 소셜 미디어	 음악 서비스
 쇼핑	 LBS	 광고	 모바일 결제/핀테크	 클라우드
 공유 경제	 LED	 친환경	 온디맨드/배달/배송	 모바일IM/개인방송

All Icons designed by designers at [www.freepik.com](http://www.freepik.com)